



법관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롤모델 가인 김병로를 만화로 만난다

- 책이름 | 정의를 바로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글 콘텐츠하다 | 그림 이두원
- 펴낸곳 |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 발행일 | 2014년 1월 10일
- 판형 | 174쪽
- ISBN | 978-89-93171-66-2 77360
- 분류 | 어린이 > 역사/문화/인물 > 한국위인
만화 > 학습만화 > 한국역사/ 인물/ 지리
- 문의 | 사법발전재단 02)3480-1309

■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법관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법관으로 꼽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만화위인전이 출간됐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변호하고 해방 후 첫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기틀을 세운 가인 선생은 '나라의 큰별, 살아있는 정의'로 일컬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사후 50주년을 맞아 출간된 이 책과 더불어 2014. 1. 13. 추념식, 학술심포지엄과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나라의 큰별, 살아있는 정의

1887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가인은 만 18세에 면암 최익현 선생을 따라 의병 운동에 뛰어들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 소년이었다. 일본 유학 후에는 항일민족변호사로서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형 사건, 의열단 사건과 광주학생운동, 원산노동자파업, 옥구군 소작쟁의 등 수십 건의 독립운동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하며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다

해방 직후부터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도 가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법원장으로서 민법과 형법을 완성하고, 대법원을 세우는 등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관들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찰, 검찰 등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냈다. 대통령도 꺾지 못했다는 그의 강직함과 비싼 양복 대신 두루마기를 입고, 점심도시락을 싸서 다닐 정도로 청렴했던 초대 대법원장 시절의 일화들은 아직도 법관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유명하다.

■ 법관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꼭 알아야 할 가인 김병로 이야기

많은 어린이들이 법원과 재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장래희망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관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 롤모델이 되어줄 만한 인물은 아직 소개된 적이 없다. 《정의를 바로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가인의 어린 시절부터 대법원장 시절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만화로 엮었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법관상을 제시하고 법과 정의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정의를 제시하는 법교육 책이 될 것이다.

■ 연구·개발 | 사법정책연구실

판사 등 실무법조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대법원 내 연구 부서로, 법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개발한 책으로 초등학생용 법교육 만화 《바로 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시리즈 및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등이 있다.

■ 글 | 콘텐츠하다

스토리텔링 콘텐츠 전문회사. 단행본과 홍보물, 영상, 홈페이지를 비롯해 이북, 앱과 같은 스마트 콘텐츠까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있다. 스토리가 가지는 힘과 발전하는 기술을 결합해 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http://contentshada.com>)

■ 그림 | 이두원

《why? 생활과학》 《셀과 탐험대》 《who? 노면베순》 《why? people 스티브잡스》 《Why? People 마거릿 대처》 등의 작업을 하며 학습만화 전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 차례

제1장. 의병이 된 어린 유생 _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김병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경야독하며 공부에 재미를 붙여간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김병로는 면암 최익현을 따라 의병 운동에 뛰어들다.

제2장. 변호사의 꿈 _ 일본 유학 시절

의병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김병로는 일제의 폭력과 탄압, 수탈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돕기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제3장. 독립을 변호하다 _ 항일민족변호사로서의 활동

김병로는 동료 변호사들과 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해 독립운동 사건의 무료 변론을 도맡는다. 식민지 법정에서도 조선인 모두가 독립을 바라고 있다고 당당히 외치는 김병로. 일제는 그를 비롯한 항일민족변호사들을 잡기 위해 계락을 세운다.

제4장.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다 _ 사법부장 시절부터 대법원장 취임 직후까지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병로는 법전을 편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법관들의 체계를 세워 사법부의 기틀을 다진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청렴한 생활을 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된다.

제5장.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_ 반민특위 활동과 6.25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병로는 재판관장에 임명된다. 친일파들은 암살계획을 세우고, 찾아와 사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병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다.

제6장.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다 _ 대통령과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된 사건이 재판정에 오르자 정치가들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어떤 법관들은 경찰과 검찰의 압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김병로는 대통령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법관들을 보호한다.